'근혜노믹스' 中企 내수 + 대기업 수출 쌍끌이

〈박근혜+이코노믹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재확인
전경련선 대기업 본연 역할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재계 대표들을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이른바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의 얼개를 보여줬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 대부분은 당선 직후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을 중심축에 놓고 경제정책을 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경련을 방문해서는 대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향후 경제정책에서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읽힌다.

◇MB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비교되는 朴의 '중소기업 대통령'=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고 말했다.

5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 총수 간담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친기업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맞아 경제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중소기업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최근 대선 과정에서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근혜노믹스'가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털어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中企·소상공인 육성책 잇따를 듯= 박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와 발언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을 대폭 키우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경제구조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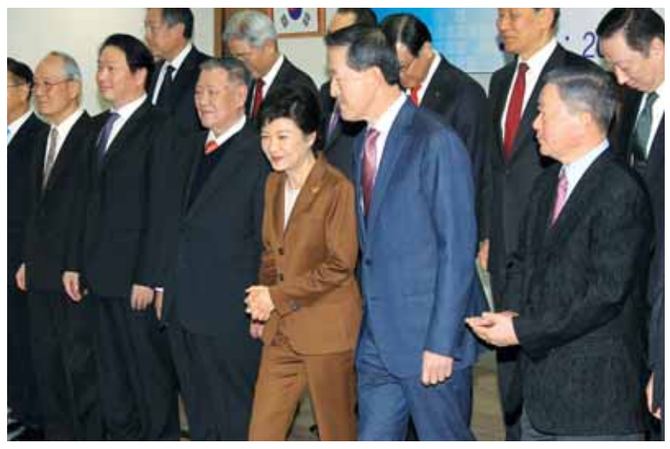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과거 개발독재의 폐단을 줄이고 중소기업·중산층 중심의 성장을 추구했던 'DJ노믹스(대중참여 경제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벤처육성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공정경제' 공약들도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최하부 조직을 떠받치는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약 7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만큼 이들 계층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내수경기 활성화의 첫 단추이자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중산층 재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상공인 만나고 대기업 회장단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임원단과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방문,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대기업 회장단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 "막말 윤창중 사퇴" 공세

새누리 따가운 여론에 곤혹… 朴 측 "첫 인사 존중해줘야"

민주통합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인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사진〉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불통인사', '나홀로 인사' 등의 표현으로 박 당선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수석대변인은 편 가르기에 의한 박 당선인의 불통인사이자 잘못된 첫 단추"라며 "지금 즉시 윤 수석대변인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박 당선인의 첫 인사는 국민대통합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나홀로 인사이고 폐쇄적인, 소위 불통의 예를 또 한 번 보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당내에서도 마뜩지 않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윤 수석대변인의 임명은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어려운 데다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지만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들어 답답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첫 인사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인수위 구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않나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윤 수석대변인을 인수위 기간 두 달가량 임명하겠다는 것인데다 당선인의 첫 인사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이겼으니 보수주의자를 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거 극우 발언은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 "민생 해결 위해 국채 발행 필요"

"국회서 유통법 꼭 통과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라며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복지확충 등 자신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선 "약속 실천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서 "유통법 문제인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업 하는 어려운 분들이 납품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상인연합회 분들이 그 시간을 10시부터 금지한 것을 12시로 양보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해서 28일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겨울 추위 이겨내는 따스한 우정

김은영의 '그림 생각'

⑫ 추운 시절

연일 매서운 추위다. 계절이 그래서인지 시절 또한 가슴 시리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추운 시절은 있고, 그 시절이 되어서야 삶과 사람을 배우게 된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는 이렇게 '추운 시절'에 그린 그림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세한도'는 제목과 달리, 실은 진정으로 온기 따스한 그림이다.

당대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추사는 약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어 적거생활을 했다. 한때 추사 문전에 북적대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제자 우선 이상적(1804~1865)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스승을 찾는다. 제자는 중국을 열 두 번이나 다녀오면서 수백 권의 책을 구해 유배당한 스승에게 보낸다. 추사는 그 마음에 감격하여 제자를 위해 '세한도'를 그린다. 겨울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풍경에 허름한 집 한 채와 나무 네그루가 서있고, 그림 왼편에는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를 적었다. 추사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공자의 '논어'를 인용하면서 변하지 않은 제자의 정에 고마워한다.

'세한도'를 일러 천하를 유랑한 그림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그려져 이상적에게, 그 후 일제강점기 추사의 연구자였던 경성대 교수 후지즈카 린의 손에 넘어간다. 이를 안 진도 출신의 서화가 소전 손재형선생이 도쿄로 찾아가 백일 동안 설득한 끝에 양도받아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한권의 소설 이상으로 극적이다.

나의 제주도 여행길에도 추사 적거지가 중요한 행선지다. 초가집과 소나무의 스산한 모습이 '세한도' 그림 속 풍경처럼 낯익다. 이곳에서 추사는 '추사체'를 완성했고 '세한도'를 남겼다. 절체절명의 고독 속에서 지냈을 추사의 심경이 되어 본다.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새삼 추사와 우선의 깊은 교감이 세상 무엇보다 부러워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日日만평

- 김종두

진짜, 이건 아니다